

헝가리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 3.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의견	14

I. 일반개황

면적	93천km ²	GDP	1,351 억 달러 ('14)
인구	9.90 백만명('14)	1인당 GDP	13,610 달러 ('14)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Forint(Ft)
대외정책	유로존 가입 추진	환율(달러당)	232.60 ('14)

- 헝가리는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세르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부유럽 내륙국으로 동서유럽을 잇는 지리점 이점을 지니고 있으며 한반도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국토면적과 99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
- 2014년 4월 총선에서 청년민주동맹(Fidesz)이 전체 199석 중 133석의 의석을 차지하며 승리함에 따라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총리가 재집권에 성공하였음.
- 헝가리는 비셰그라드(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로 구성된 중부유럽 4개국 협의체) 국가이나, 2014년 5월 이후 EU 가입 이후에도 러시아와의 관계강화를 모색하는 등 실리 위주의 외교정책을 추진함.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경제성장률	0.8	1.8	-1.5	1.5	3.5
재정수지 / GDP	-4.5	-5.5	-2.3	-2.4	-2.9
소비자물가상승률	4.9	3.9	5.7	1.7	-0.2

자료: EIU.

□ 자동차 산업 호황 및 내수증대에 힘입어 2014년 경제성장률은 3.5%로 회복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침체를 겪은 헝가리는 이후 유로존 국가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플러스 전환되며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해옴.
- 과도한 조세정책으로 인한 투자 및 소비침체와 유로존 위기의 영향으로 2012년 경제성장률은 -1.5%를 기록하였으나, 중앙은행의 경기부양책과 건설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2013년 1.5%의 경제성장률로 플러스 전환됨.
- 2014년에는 자동차 산업 호황, 간접세 인하에 따른 내수증대로 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통화(포린트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달러화 환산 경상 GDP는 2011년 수준에 미달하는 수준임.

□ 소비자물가의 디플레이션 우려

- 201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포린트화 약세에 따른 원자재 수입가격 인상 및 부가가치세율 인상으로 5.7%를 기록했으나, 2013년 안정세로 들어서며 1.7%를 기록함.
- 2014년에는 국제유가 하락 및 정부의 에너지 요금 인하, 식료품 가격 하락 등으로 -0.2%를 기록하여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임.

□ 2014년 지방선거 이전 재정적자는 소폭 확대되었으나, GDP 대비 -3% 이내로 억제

○ 헝가리는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 126조(과도한 재정적자 방지의무)에 따라 초과 재정적자 시정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를 받아왔으며, 2010~11년에도 각각 -4.5% 및 -5.5%의 재정적자를 기록함.

○ 2012년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세차례에 걸쳐 발표하는 등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 결과 2013년 6월 EDP를 졸업했으며 재정적자는 -2.4%를 기록함.

- 재정건축안에는 금융거래세 인상, 공공부문 지출억제, 에너지기업의 소득세 인상, 온라인 도박세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음.

○ 2014년에는 선거를 앞두고 재정지출이 확대되었으나 강력한 세수 확보로 소폭 증가에 그쳐 -2.9%를 기록함.

- 헝가리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각종 특별세를 도입한 것에 대해 2012년 EU 및 IMF는 정부예산 축소 등의 구조적 개혁을 촉구한 바 있으며, 장기적으로 효율적이고 성장지향적인 재정지출과 합리적 세제 확보를 통한 재정건전화가 요구되는 상황임.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서유럽에 편향된 무역구조

○ 헝가리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교역 상대국이 서유럽에 편향(대 EU 수출 비중: 79.85%)되어 있어 서유럽 국가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취하고 있음.

□ 에너지에 대한 높은 수입 비중

- 헝가리는 원유, 가스 등 에너지에 대한 수입 비중이 소비량의 55.4%를 차지하여 국제유가 등 대외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 또한 헝가리는 천연가스 소비량의 약 80%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고 있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2015년 2월 헝가리 원자로 건설에 필요한 100억 유로 및 기술을 러시아가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됨.

나. 성장잠재력

□ 지정학적 이점, 풍부한 고속철 저임금 인적자원 보유 등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반 형성

- 헝가리는 중부유럽에 위치하여 7개국(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및 우크라이나)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도로 등 인프라시설이 여타 동유럽 국가에 비해 잘 구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고속철 저임금 노동력 보유로 생산 및 물류 기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음.

□ 2014년 9월, IFC의 기업경영여건 평가순위 상위권 유지

- 매년 국제금융공사(IFC)가 발표하는 기업경영여건 평가(Doing Business Rating)에서 헝가리는 2014년 전년과 동일하게 54위/189위로 평가되어 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로는 조세납부, 전기공급 부문에서 투자여건이 악화되었으나, 사업허가 및 교역환경 부문에서 투자여건이 개선되어 종합순위는 전년 수준을 유지함. 한편, 엔지니어링, IT부문에 고속화된 노동력이 풍부하며 헝가리의 2012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2.26달러)은 OECD 26개국 중 23위로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재정개선 및 경기회복에 초점을 둔 개혁법안과 중소기업 지원 추진

- 2012년 10월, 경제부 장관은 EU 및 IMF의 권고를 수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공공부문 지출 억제 등 다양한 세제 도입을 포함하는 재정긴축안을 발표했으나, 기업에 불리한 정책(지방영업세 산출방식 변경, 금융거래세 인상 등)으로 외국기업의 투자 위축 가능성이 상존함.
- 헝가리 중앙은행은 2013년 4월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성장펀딩 제도(Funding for Growth Scheme: FGS)를 발표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 노력을 지속함.

□ 2015년 이후 러시아와 에너지 관련 협정 체결

- 2015년 2월, 러시아와 에너지 분야의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헝가리는 향후 가스 수입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 관련 협정을 통해 헝가리는 계약한 가스수입량에 미달하더라도 계약량 전체에 대해 금액을 지불하던 기존 방식에서 미달한 가스수입량에 대해 추후 수입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리하게 변경했으며, 러시아의 유럽을 잇는 가스관 사업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경 상 수 지	346	1,132	2,307	5,497	4,380
경상수지 / GDP	0.3	0.8	1.8	4.1	3.2
상 품 수 지	3,472	4,072	3,867	4,768	5,105
수 출	87,666	99,911	90,318	96,175	104,496
수 입	84,194	95,839	86,451	91,407	99,391
외 환 보 유 액	43,581	47,725	44,028	46,254	45,280
총 외 채 잔 액	178,489	184,237	165,926	167,191	164,345
총외채잔액 / GDP	137.7	132.1	130.8	125.3	122.2
D S R	32.1	30	37.9	32.1	32.7

자료: EIU 및 IMF.

□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 헝가리는 제조업 중 자동차 산업이 특히 발달하여 자동차 수출로 인한 상품 수지 흑자를 유지해 왔으며, 2014년 GDP 대비 3.2%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며, 2015년에도 낮은 국제유가 및 포린트화 약세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총수출증가율 및 GDP 대비 총수출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

- 헝가리의 수출은 기계 및 운송장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EU 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 EU 경제상황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음.
- 2012년 유럽 경제위기(재정악화 등)로 인해 총수출증가율은 -6.4%를 기록했으나, 2013~14년에는 각각 6.18% 및 6.83%로 호전되었으며, GDP 대비 총수출 또한 동 기간중 각각 88.8% 및 93.6%를 기록하며 상승 추세를 나타냄.

□ 2012년 8월 이후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 조치 시행

- 헝가리는 2012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는데, 2015년 3월에도

기준금리를 2.1%에서 1.95%로 15bp인하하여 1960년대 공산주의 시절 이후 최저 금리를 기록함.

- 헝가리는 경기부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왔으며 2015년 3월 ECB의 양적완화 통화정책(국채매입)으로 유로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함. 또한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소비자물가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비하려는 조치로도 해석됨.

□ 포린트화 가치 약세 지속 추세

- 2014년 3월 이후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로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유럽 신흥투자시장의 통화가치도 하락하였으며, 헝가리 포린트화 가치는 2014년 미달러 대비 232.6포린트(연평균)로 전년(223.7포린트) 수준에 비해 3.98% 하락함.
- ECB의 전면적 양적완화 통화정책(2015년 3월 이후 1년 6개월간 국채매입 등)으로 인한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포린트화 가치도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4. 외채상환능력

□ 외채규모는 과중한 수준

-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120%이상의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으며 외채의존도가 높아 대외충격으로 인한 환율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 총외채잔액은 2013~14년 각각 1,672억 달러 및 1,643억 달러, GDP 대비 각각 125.3% 및 122.2%로 과중한 편임.
-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4년 말 기준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116.6%)을 형성함.

□ 단기유동성위험은 완화되고 있으나, 30% 이상의 DSR이 외채구조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로 잔존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09년 헝가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유로존 국가들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로 30%를 넘어선 이후 2014년 32.7%를 기록하는 등 30%를 상회하며 높은 수준을 형성함.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014년 47.7%로 2011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
 - 단기외채 / 외환보유액: 65.2%(2011)→ 51.2%(2012)→ 49.3%(2013)→ 47.7%(2014)

III.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여당 청년민주당(FIDESZ)의 안정적인 국정운영 지속

- 2010년 4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사회민주당(MSZP)을 누르고 중도우파 성향의 청년민주당(FIDESZ)이 승리함에 따라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총리가 8년만에 재집권에 성공함. 청년민주당(FIDESZ)은 전체 의석(386석)의 3분의 2보다 많은 263석을 확보함에 따라 야당의 지지없이 단독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한 여당이 됨.
 - 총선에 이어 2010년 6월 청년민주당(FIDESZ)이 대통령 후보로 지명한 슈미트 팔 국회의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2012년 박사학위 논문표절로 사임하여 야노쉬 아데르가 대통령이 됨.
- 2014년 4월 총선에서 집권여당 청년민주당(FIDESZ)이 의석 수의 67%를 차지하며 재집권했으며, 10월 지방선거에서도 전체 23곳 중 20곳을 차지하며 승리하여 향후 정치안정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개정헌법 2012년 1월 발효

- 2012년 1월 발효된 중앙은행법 개정안에는 정부의 중앙은행 총재에 대한 급여조정권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중앙은행의 독립성 침해 소지가 있음. 개정헌법 발효를 앞두고 헝가리에서 반정부시위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비난을받았으며 IMF 및 EU와의 구제금융 협상도 차질을 빚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인종갈등 잠재 및 반정부시위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안정된 수준

- 헝가리에는 경제, 사회적으로 최하층을 형성하고 있는 집시가 60만~80만 명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단순노동, 사회복지 수당 등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음.
- 2014년 10월, 헝가리 정부의 인터넷 사용량에 따른 과세 추진에 반발하며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으며 11월에도 정부정책, 부패 등을 비난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으나 사회는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실업률은 공공 및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로 하락 추세

- 헝가리의 실업률은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대규모 해고사태로 급증한 이후 10%대를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해옴.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민간 부문 일자리 증가로 2013년부터 실업률은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 2014년에는 7.7%를 기록함.

- 실업률: 11.2%(10)→ 10.9%(11)→ 10.9%(12)→ 10.2%(13)→ 7.7%(14)

3. 국제관계

□ 최근 러시아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EU와의 갈등 잠재

- 헝가리 집권여당 청년민주동맹(FIDESZ)은 EU 회원국과의 친밀한 관계유지를 외교기조로 삼아왔으며, 특히 EU 내 중동부 유럽 국가간 관계를 중시

하는 등 실리 위주의 외교정책을 추진해 왔음.

- 2014년 11월 헝가리는 친러 외교를 펼치는 것이 아니냐는 EU의 지적을 받아 EU 회원국으로서 임무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그러나 2015년 2월 오르반 총리가 EU의 대러 경제제재 지속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등 러시아에 우호적인 입장을 지속함.

□ 비셰그라드(Visegrad) 4국 간 협정으로 협력체제 구축

- 헝가리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로 구성된 중부유럽 4개국 협의체인 비셰그라드의 회원국으로서 중부유럽과 협력체제를 구축했으며, 2013년 7월부터 1년간 의장국을 수행함.

- 비셰그라드는 2004년 EU 가입 후 무역규모가 급증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및 서유럽과의 접근성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어 유럽의 경제적 요충지로 부상함. 또한, 비셰그라드는 EU 역내 교역 비중이 높아 무역구조를 다변화하는 동방정책 추진으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도 꺾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2013년 IMF 차관 조기상환

- 헝가리는 재정위기로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2008년 IMF(157억 달러), EU(81억 달러) 및 세계은행(13억 달러)과 총 251억 달러 규모의 2년 만기 구제금융 지원협정을 체결함.
- 2010년 헝가리에 대한 투자신뢰가 회복되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2011년 다시 IMF와 EU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으나 협상 끝에 추가적 차관을 받지 않았으며, 2013년 8월 IMF 차관을 조기상환함.

□ 외채수준 높지만 중장기외채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관리가능한 상태

- 헝가리의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013~14년 각각 11.34% 및 11.28%로 중장기외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관리가능한 상태임.
- 2014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의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 ECA) 인수승인 잔액은 단기 3억 7천 달러, 중장기 6억 달러이며 이중 연체금액은 1억 7천 달러로 연체비중이 18%로 높은 편임.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ECA 지원 태도('14년 10월 기준)

- 미국 EXIM: 최고부보율적용(Full Cover Available)
- 영국 ECGD: 최고부보율적용(Full Cover Available)
- 독일 Hermes: 단기인수가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ST Cover Available, Restrictions May Apply)

□ OECD 및 3대 신용평가기관, 2011년 말 이후 헝가리 정부채권 신용등급 유지

- 2012년 11월 S&P는 헝가리의 세금인상, 금융 부문에 대한 세금부과 등의 정책을 이유로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2011년 11월 Moody's 또한 높은 외채 비율 및 재정목표 달성의 불확실성 등을 문제삼아 Baa3에서 Ba1(투자부적격)으로 강등한 이후 등급을 유지해 오고 있음.

- S&P는 2014년 3월 헝가리의 외채수준은 여전히 높지만 재정수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정부채권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조정함.

- Fitch는 2012년 1월, EU 및 IMF와의 구제금융 협상 중단을 이끈 비정상적인 경제정책(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법 제정 등) 등을 이유로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BBB-에서 투기등급인 BB+로 강등한 이후 동 등급을 유지해 오고 있음.

□ 2014년 양국간 교역규모 전년대비 감소

- 양국간 수교 역사는 짧은 편이나 경제교류 확대를 바탕으로 하여 정치, 외교, 문화, 학술 등 다방면의 협력관계 구축이 진전되고 있음.
- 1989년 수교 이후 양국간 교역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2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에는 2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26억 달러) 대비 22% 감소함.

-한-헝가리 무역규모 추이: 19억 달러('11)→16억 달러('12)→26억 달러('13)
→20억 달러('14)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평판디스플레이, 영상기기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곡식류, 자동차부품, 원동기 및 펌프임.

□ 대 헝가리 직접투자 급등락 지속

- 2014년 12월말 기준 대 헝가리 직접투자 규모(누계기준)는 총 83건(신규법인수), 4.1억 달러(투자잔액)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임.
- 우리나라의 대 헝가리 직접투자는 2009년을 기점으로 감소하여 2012년에는 최저수준을 기록함. 2013년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급증하여 투자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4년에는 다시 감소함.

- 직접투자규모 추이: 127만 달러('11)→49만 달러('12)→3,963만 달러('13)
→85만 달러('14)

<표 4> 한·헝가리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2	2013	2014	주요품목
수 출	1,157	2,114	1,481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평판디스플레이, 영상기기
수 입	475	467	515	곡실류, 자동차부품, 원동기 및 펌프
합 계	1,632	2,581	1,996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경제성장률은 2013년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2014년 자동차 산업 호황 및 내수 증가에 힘입어 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4년 국제유가 하락 및 정부의 에너지 요금 인하, 식료품 가격 하락 등으로 -0.2%를 기록하여 디플레이션이 우려됨. 특히, 2008년 경제위기의 대표적 요인이었던 재정수지 적자는 2012년 이후 크게 축소되어 GDP 대비 -3%이내로 억제되었고 IMF 차관도 2013년 8월에 조기상환함.
- 2012년 유럽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수출이 위축되었으나 2013년 이후 수출 회복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확대되는 추세이며 DSR(30%이상)을 제외하고 외채구조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헝가리 청년민주동맹(FIDESZ)이 2014년 총선 및 지방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여당의 정권기반이 강화되었으며, 대외적으로 EU의 대 러시아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EU와의 갈등이 잠재되어 있음.

조사역 조희연(☎02-6255-5708)

E-mail: chy@koreaexim.go.kr